현불논단

# 상월결사 3주년에 부쳐



윤재웅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학장

**부처님 생애서 나무는 중요한 상징**
**출생, 정각, 열반 모두 나무와 연결**
**나무, 하늘과 땅 잇는 연기적 존재**
**길 역시 이곳과 저곳 이어 만들어져**

**2019년 11월 1일 상월결사 시작돼**
**나무처럼 수미산-사바세계를 이어**
**안주하지 않고 길 만들어 걸어갔다**
**상월결사의 내일이 한국불교 미래**

마음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니카자와 신이치는 〈예술인류학〉에서 이렇게 말한다. 네안데르탈인의 뇌는 현생인류보다 크지만 뇌의 구조가 지식 영역을 따로 관장하기 때문에 지식이 서로 유동하지 못했다. 현생인류는 뇌의 크기를 줄이면서도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는데 그 비법은 지식 영역을 상호 교류시키는 데 있었다. 그 결과 뇌 속의 뉴런 신경 세포체가 발달하고 정보와 지식이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진화가 일어나면서 창조적 지식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이 상상력이 마음을 탄생시켰다고 그는 주장한다. 인간의 상상력은 인지, 분석, 추론, 적용, 종합, 평가 등의 행위를 유도하고 예술과 종교의 발명을 이끈다. 이 스토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잇기-연결'이다.

개체로서의 인간은 유전적 선조의 계통발생을 반복하고 있으며 다른 사물들과도 연계돼 있다. 수행자 싯다르타가 깨달음을 이루어 붓다가 됐을 때 성찰해 보니 우주의 모든 현상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름 하여 연기법(緣起法)이다. 연기법은 고도의 형이상학이어서 보통사람들은 알기 어렵다. 붓다의 연기론을 쉽게 설명하는 방식은 경험적 사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가장 확실한 이미지는 나무와 길이다.

붓다의 생애에서 나무는 중요한 상징이다. 붓다는 아쇼까 나무(무우수) 아래서 태어나고 뻡빨라 나무(보리수) 아래서 깨달았으며 샬라 나무(사라수) 아래서 입멸한다. 나무의 생태적 본질은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이다. 하늘의 빛과 땅의 물을 결합시켜 산소를 공급하고 그늘을 만들어 더위에 지친 이들을 쉬게 한다. 생명의 보살행이다.

길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나무의 속성을 인간의 유전적 특성으로 되바꾼 것이다. 사람은 두 발로 걸어 공간을 이동하면서 살아야 한다. 수직으로 선 나무와 같은 모양인데 인간은 나무와는 달리 수평운동을 한다. 수평운동의 지속적 반복의 결과가 길이다. 길은 지표면의 이곳과 저곳을 이어준다. 잇는다는 점에서 나무와 길은 연기법의 경험적 예증이다.

우리가 왜 나무와 숲을 사랑해야 하며, 열심히 걸어서 이웃과 마음을 나누어야 하는지는 연기법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나무와 길은 연기의 법칙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고 지각을 통해 깨우쳐준다. 나와 너를 잇는 것. 전통과 현대를 잇고, 번뇌와 열반을 잇는 것. 그리하여 모든 차별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붓다정신의 핵심이 아니고 무엇인가.

상월결사 3주년이 다가왔다. 2019년 11월 11일, 도심 한복판 아파트 공사현장에 비닐 천막을 치고 아홉 스님이 3개월간 용맹정진을 했다.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전통을 파괴한 새로운 수행양식이었다. 수미산이 멀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바세계 한복판이라는 선언이었다. 나무가 하늘과 땅을 잇는 것처럼 수미산과 사바세계를 이었다. 그러고는 길을 걸었다. 붓다가 45년간 전법한 방식을 병마에 신음하는 '지금 여기'에 도입했다. 안주하지 않고 길을 만들어 걸었다. 방일하지 않고 정진했다. 화려한 말잔치 대신 묵언설법을 택했다.

오늘의 한국불교가 박물관 속 문화유산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대정신과 이어져야 하고 국민 눈높이와 마주해야 한다. 현장성과 실제성이 몰각되는 불교는 박제불교일 뿐이다.

상월결사의 내일이 곧 한국불교의 미래이다. 11월 11일. 1자 네 개가 모이면 두 사람이 마주보고 합장하는 모양새다. 나하고 너부터 이어보자. 불교계 내부는 물론 정치인들부터 모범을 보이면 좋겠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입니다.'



인현 스님의
제주 山房日記

# 한라산 베이스캠프, 존자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주는 변방이었다. 그러나 한라산은 성스럽게 여겨졌다. 그래서 제주에 오는 관료와 양반들은 한라산 백록담에 올라 기도를 올리고 시문을 한 곡이라도 남기고 싶어 했다. 그 베이스캠프가 존자암이다.

"이 산이 멀리 2000리 아득한 바다 밖에 있으므로 실로 평생 꿈에서도 오지 못하는 곳이오, 오늘 우리의 유람이 어찌 운수소관이 아니겠소?" 판관 김치가 〈유한라산기〉에서 한라산을 등반하기 위해 존자암에 이르러 사람들에게 밝힌 소회이다.

그는 음력 4월 8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제주 성을 나섰다. '뱀과 같이 요리조리 구부러진 평평한 들과 물길을 따라 바위 사이에 핀 향기로운 풀과 철쭉과 진달래가 그림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며 말을 타고 노루악을 넘어 삼장동과 포애악을 넘었다. 이리저리 돌면서 남쪽으로 한 정사(精舍)에 도착하였다. 연하 속 푸른 바다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곳에 존자암이 있었다. 판자집 8~9칸이 띠로 덮여 있었고 사치스럽지도 더럽지도 않았다. 한 스님이 문밖에 나와 절을 하고 절집으로 맞아들였다. 그 이름을 물으니 수정(修淨)이라 했다.'

그보다 앞서 김상현은 〈남사록〉에서 '영실은 500나한도량 또는 천불봉이라 한다. 존자암은 지붕과 벽이 흙과 기와가 아닌 판잣집이며 9칸 집이다. 존자암 근처에는 20여 명이 들어갈 만한 수행굴이 있다'고 기록했다. 이영태의 〈지영록〉과 이원진의 〈탐라지〉에도 '존자암은 원래 10리 거리의 영실에 있었으나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다. 존자암이 있던 폐사지에는 계단과 초석이 아직도 완연하게 남아 있다'는 글이 있다.

이상과 같은 기록들은 제주의 설화와 함께 어우러져 존자암과 영실의 이야기를 풍성하고 신비롭게 한다. 제주의 향토사학자들은 한반도의 불교문화가 이곳 영실의 존자암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위의 기록들과 〈고려대장경〉 제30권 '법주기'에 '부처님의 16제자 가운데 여섯 번째 발타라존자가 탐몰라주에 머물렀다'라는 이야기를 결합한다.

거기에 가야불교 전래설과 아쇼카왕이 인도를 통일한 후 빠탈리뿌따에서 '일천결집(一千結集)' 후 인도 변경과 다른 나라에 전도단을 파견하였다는 비문의 기록과 연결져 이해하려고 한다. 탐몰라주는 탐라이고 존자암이 당시 파견된 존자가 창건한 사찰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이야기는 스리랑카와 태국, 미얀마에서도 전해지는데, 부처님께서 사위성에서 외도들을 교화하기 위해 천불로 화현하신 후 도리천에 가서 마야부인을 위해 설법하시고 상카시아로 하강하신다는 설화와 연결져 자신들의 나라에도 화현했다고 주장한다. 일연의 〈삼국유사〉에서도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신라 경주의 백률사로 하강하신 불족(佛足)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 자신들의 땅에 나투어 정토가 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제주 탐라인들도 그 마음으로 '영실(영축산의 여래향실)', '천불동(千佛洞)', 제자들의 수행처 '수행동(修行洞)' 또는 '오백나한도량', 부처님이 오신 길 '불래(佛來)오름', 수행자들이 탁발할 때 사용하는 발우를 의미하는 '바리메오름' 등이라고 불렀다.

〈제주 선래왓 주지〉

社 說

# 불교, '이태원 참사' 치유 나서야

핼러윈 데이를 앞둔 10월 29일 있어서는 안될 비극이 벌어졌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156명이 죽고, 173명이 다쳤다. 한국은 물론 전세계가 청천벽력같은 비극에 애도를 표했다.

불교계의 애도 행렬도 이어졌다. 조계종을 비롯한 각 종단은 애도문을 발표했고, 조계사에는 분향소가 설치됐다. 조계종은 전국 사찰에 추모 현수막을 게시할 것도 지시했다.

참사 현장과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스님들의 행보도 이어졌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10월 31일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로 인해 희생된 이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추모기도회를 봉행했고, 11월 1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7대 종교 지도자들이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스님들도 11월 3일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조계종은 11월 4일 조계사에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156명의 영가를 추모하는 위령법회를 종단 차원에서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참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불교계의 애도 물결은 희생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안전 사회에 대한 기원이 담겼다.

앞으로 불교계는 참사를 직간접적으로 겪은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해야 한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에 따르면 참사를 직간접적으로 겪은 모든 사람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 희생자와 유가족, 피해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국민들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감로수 같은 안심법문이 필요하다. 이것이 추모와 함께 불교계가 해야 할 과제이다.

# 서른살, 경찰청 불교회에 거는 기대

경찰청 불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경찰청 본청 불자직원들의 모임인 불교회가 매주 정기법회를 통해 신심을 다지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개개인의 마음을 보듬어 온 세월이 어느새 30년을 맞은 셈이다.

경찰청 불교회는 공식창립 전부터 뜻있는 불자들 십수명이 모여 동호회 형태의 신행모임으로 운영돼 왔는데, 바로 '치안본부 연꽃모임'이다. 이웃종교에 비해 늦게나마 경승실이 생겼지만 이렇다할 모임은 없었던 상황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개개인의 원력이 모여 불교회가 탄생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한 셈이다.

지하에 마련된 초창기 법당은 부처님 사진이 곧 불상이었다. 그럼에도 신심만은 드높았다. 매주 퇴근시간 이후 법당에 모여 스님의 법문을 듣고 경전공부를 했다. 산악회와 합창단, 서예 등 소모임도 활성화됐다. 특히 등산을 좋아하는 이들이 모인 산악회는 주말이면 산세 좋은 사찰을 찾아 성지순례를 하는 등 취미와 신행을 접목한 활동으로 인기를 끌었다.

200~300명이 북적이던 경찰청 불교회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젊은 세대 유입이 적어졌고 조금씩 회원수도 줄었다. 하지만 회원들의 신심만큼은 여전히 성성하다.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을 할애해 법당에 모이는 회원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직장생활 속 작은 활력을 찾고 마음을 다스린다. 불교회가 과거처럼 번성하지 않더라도 지속되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굳건한 이유다. 직장직능 신행모임의 장점은 일상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새로운 이들과 불연을 나누는 계기가 되기도 하며, 업무에 지칠 땐 잠시 쉬어갈 의지처가 된다. 경찰청 불교회의 30주년이 지난 세월을 딛고 미래를 이어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발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